



# 일곱 나팔의 심판 기도의 향을 담아



날짜: 6/27/2021 본문: 요한계시록(Rev) 8:1-13 설교자: 김연재 목사

## 말씀 FOCUS

---

성도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엽니다.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향이 되어 예수님께서 직접 들으십니다.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치 말고 오히려 더 기도해야 합니다.

## 말씀 UNDERSTAND

---

- 인 심판이 환난의 ( )이라면, 나팔 심판은 심판의 ( )
- 나팔이 불기 전, 심판의 중심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의 교훈
  1. 기도의 향을 하나님 보좌에 ( ) 올려야 합니다. (3-5)
    - (계 5:8) "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, 네 생물과 스물 넷 장로가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.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."
    -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? (마 6:33)
  2. 성도의 ( )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합니다. (5-13)
    - 첫째 나팔: 피 섞인 우박과 불 1/3
    - 둘째 나팔: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 1/3
    - 셋째 나팔: 햇불 같은 큰 별이 강과 샘물을 덮침 1/3
    - 넷째 나팔: 해 달 별 1/3 이 어두워짐
    - 독수리의 경고: 화, 화, 화, 마지막 세대의 나팔에 대한 경고

## 말씀 APPLY

---

1.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?
2. 수많은 정보와 과학이 발전된 오늘날 세상에 과연 기도가 힘이 있을까요?  
기도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세요.

## 말씀 SHARE

---